

광릉숲 둘레길

1·2코스

꼼꼼한 안내지

##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광릉숲과 둘레길

광릉숲은 2010년 6월에 다양한 생물들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선정됐으며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있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뿐 비롯해 개막딱따구리,  
팔색조 등 5,360여종의 동식물과  
20여종의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인 광릉숲은  
우리가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미래 유산입니다.  
그곳을 둘러 싸고 있는 여덟 길 중에서 두 길을 소개합니다.



## 꼼꼼한 안내지는

여러분의 즐거운 걷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둘레길 코스상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잠시라도 발길을 이어 둘러 보시면  
훨씬 좋을만한 몇 군데를 추가해 두었으니  
마음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둘러보심은 어떠하실런지요?  
둘레길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곳들이랍니다.  
여러분의 발길과 눈길을 받는다면 그곳은 또 얼마나 설레며 행복에 빛날까요?

## 순서

- 02 순서
- 03 준비하기
- 05 1코스 옛사랑길 1구간 진접중학교-장현 길훈로즈빌  
사과나무가 예쁜 길
- 11 1코스 옛사랑길 2구간 장현 길훈로즈빌-내각 대궐교  
역사와 만나는 길
- 17 1코스 옛사랑길 3구간 내각 대궐교-별내면주민센터  
돈(豚) 내려오는 길
- 23 2코스 종말고갯길 별내면주민센터-우지랭이약수터  
잣나무 솔솔 바람길
- 27 2-1코스 종말고갯길 별내면주민센터-비루고개  
꽃이 있는 마을길  
\*코스에 있는 길 이름은 꼼꼼한 안내지를 만든 구성원들이  
그 곳의 특징을 살려서 지었습니다.
- 31 광릉숲 둘레길 8코스 전체 지도
- 32 광릉숲 둘레길 스케치





## 꼼꼼하게 준비하기!!

둘레길 난이도를 확인해주세요!!

- 난이도** ★☆☆☆☆ 하 : 쉬워요!
- 난이도** ★★☆☆☆ 중 : 조금 힘들어요!
- 난이도** ★★★☆☆ 상 : 힘들어요!
- 난이도** ★★★★☆ 최상 : 당신은 강철 체력!

### 둘레길 소요시간

운동량이 적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어요.

### 운동화 & 트레킹화

둘레길 구간 마다 높 낮이가 다르지만 운동화 보다 트레킹화가 편해요.

### 식수 & 간식

둘레길에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중간중간 마을을 이용하세요. 식수와 간식은 미리 준비하는 센스!  
산행중 간식은 체력이 소진되기 전에 드세요.

### 일회용 물품 & 쓰레기

둘레길에는 화장실도 쓰레기통도 없어요.  
우리도 LNT를 실천해요!!

### 둘레길 시작하기전 소소한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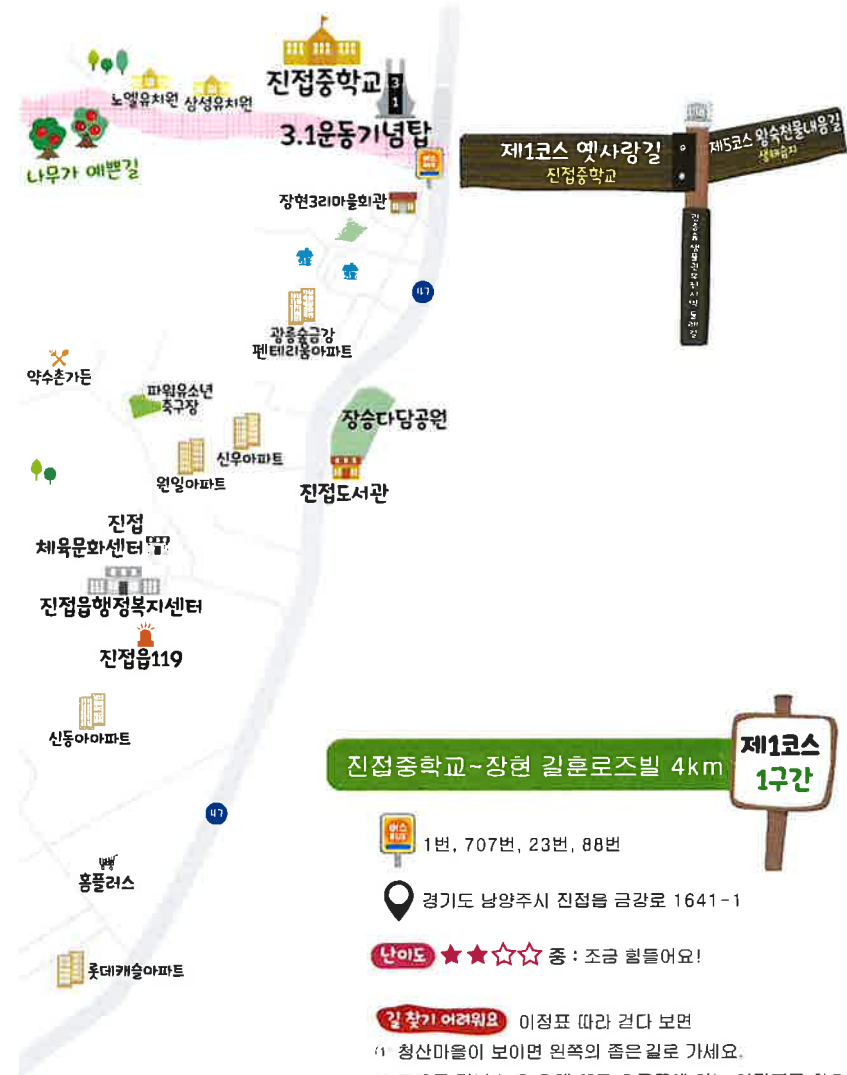


- \* 1코스는 구간이 13km라서 세번에 나눠 걷기를 권해요.
- \* 2코스는 도정산이 있는 길고 힘든 길이에요.
- \* 2-1코스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지만 길가에 꽃이 예뻐요.
- \* 혼자보다는 함께 걸으면 좋아요.



준비완료!!  
이제 출발할까요?





진정중학교-장현 길훈로즈빌 4km

제1코스 1구간



1번, 707번, 23번, 88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정읍 금강로 1641-1

난이도 ★★☆☆☆ 중 : 조금 힘들어요!

길 찾기 어려워요 이정표 따라 걷다 보면

① 청산마을이 보이면 왼쪽의 좁은 길로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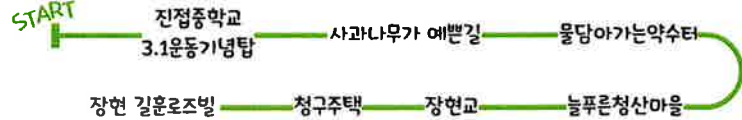
② 도로를 건너 눈을 크게 뜨고 오른쪽에 있는 이정표를 찾으세요.

중요 TIP

① 물담아가는 약수터부터 늘푸른청산마을까지 예쁜 숲길

② 침구주택부터 삼신아파트 후문까지 예쁜 숲길

**제1코스  
1구간**



**3.1운동 기념비**

- 우리 동네에도 유관순 아저씨가 있었다!!

1919년 3월 1일 경성 종로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남양주 진점에서 만세시위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봉선사 스님 김성암이 평소 뜻을 같이 하던 이순재 등과 봉선사 서기실 에다 비밀리에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등사판을 이용하여 유인물 200매를 만들어 29일 밤에 진벌리 등 4개의 동리에 나눠주었다. 3월 30일 광릉내 주재소 앞 광릉천변에 1,000여 명의 주인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김성암과 이순재 등 많은 주인이 일경에게 체포되니 이것이 진점의 제1차 만세운동이다.

뒤늦게 유인물을 보고 모인 접동리 주민들도 3월 31일 역시 광릉천 자갈밭에서 100여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다가 다수가 체 포되었다. 이것이 진점의 제2차 만세운동이다.

불들려간 주민들은 징역 6월, 1년, 1년 6월 등을 받았는데, 이순재 아저씨는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를 부르는 등 이른 바 수형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년의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동네 가 시시한 동네가 아니며 우리 동네에도 유관순 아저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기념비이다.



**영빈묘**

- 인현왕후와 함께 쫓겨나고 함께 돌아오다

영빈 김씨는 숙종의 후궁이다. 당시 숙종의 총애를 받던 희빈 장씨를 견제하기 위해 같은 서인 배경 집안인 인현왕후의 추천으로 숙의로 간 택되어 입궁하였다. 영빈이 출신이라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봉상정치 싸움이 가장 극심한 시기인 탓에 왕의 총애는 커녕 외려 왕의 기밀을 엿탐하여 친정에 알리고 유언비어를 지어내 유포한다는 죄로 인현왕후와 함께 폐출 되었다가 5년 후 갑술환국 때 인현왕후와 함께 복위되어 궁으로 돌아왔다. 인현왕후가 죽고 인원왕후가 숙종의 두 번째 계비가 되자 영빈 김씨는 숙빈 최씨 그리고 인원왕후 김씨와 가깝게 지내며 숙빈 최씨 소생인 연잉군이 왕세제가 되고 왕위에 오르게 되기까지 은밀한 도움을 주었다. 왕위에 오른 영조는 영빈이 6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각별한 예우를 하였으며, 자손이 없는 그녀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도록 특별히 명하고, 제사를 위해 자신의 열 번째 딸인 화유옹주를 봉사손으로 삼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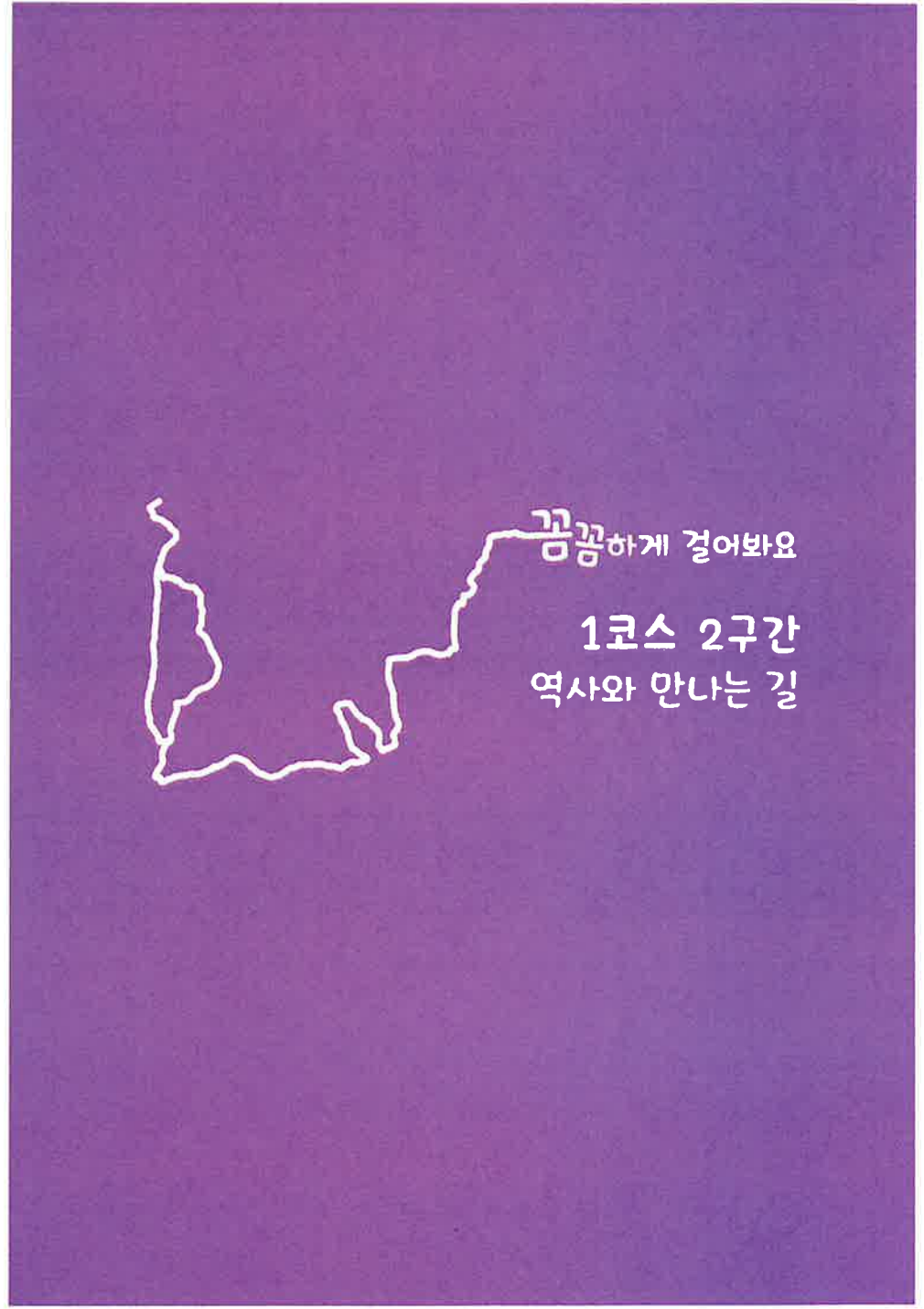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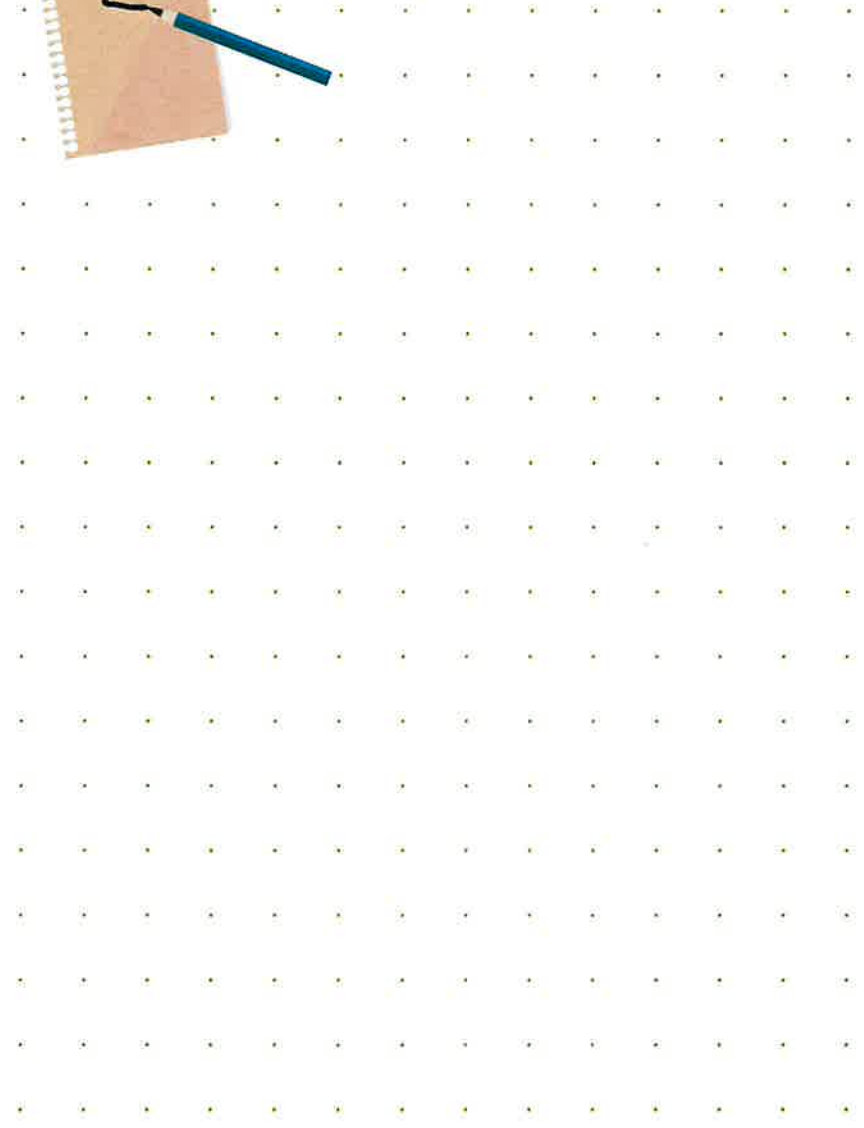
**대를 이은 맛자랑**

- 착한 가족의 떡볶이

잇따른 남편의 사업실패로 서울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된 아줌마.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하던 그녀였지만 어려운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겠다 마음먹고 리어카에 떡볶이를 올려놓고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꽤나 늘어나고 자신감이 붙을 즈음 땅주인과 갈등이 생겨나고 자리를 옮겨 가건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비슷한 고난이 파도처럼 이어지고, 깊어진 우울증으로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녀.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지 여든 25년. 슬한 고비를 이겨내고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사춘기 소녀 적부터 시작해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어 아이의 손을 잡고 지금도 찾아오는 단골손님들, 형편이 어렵고 배고픈 학생 들에게 '내가 줄것이라면 이것밖에 없다'며 떡볶이와 따뜻한 어묵 국물 을 내어주던 그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쑥 한 번 안 부리고 그녀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며 자라난 착한 아들은,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예쁜 아가씨에게 반해 웅망히 데이트를 신청하였고 벌써 결혼하여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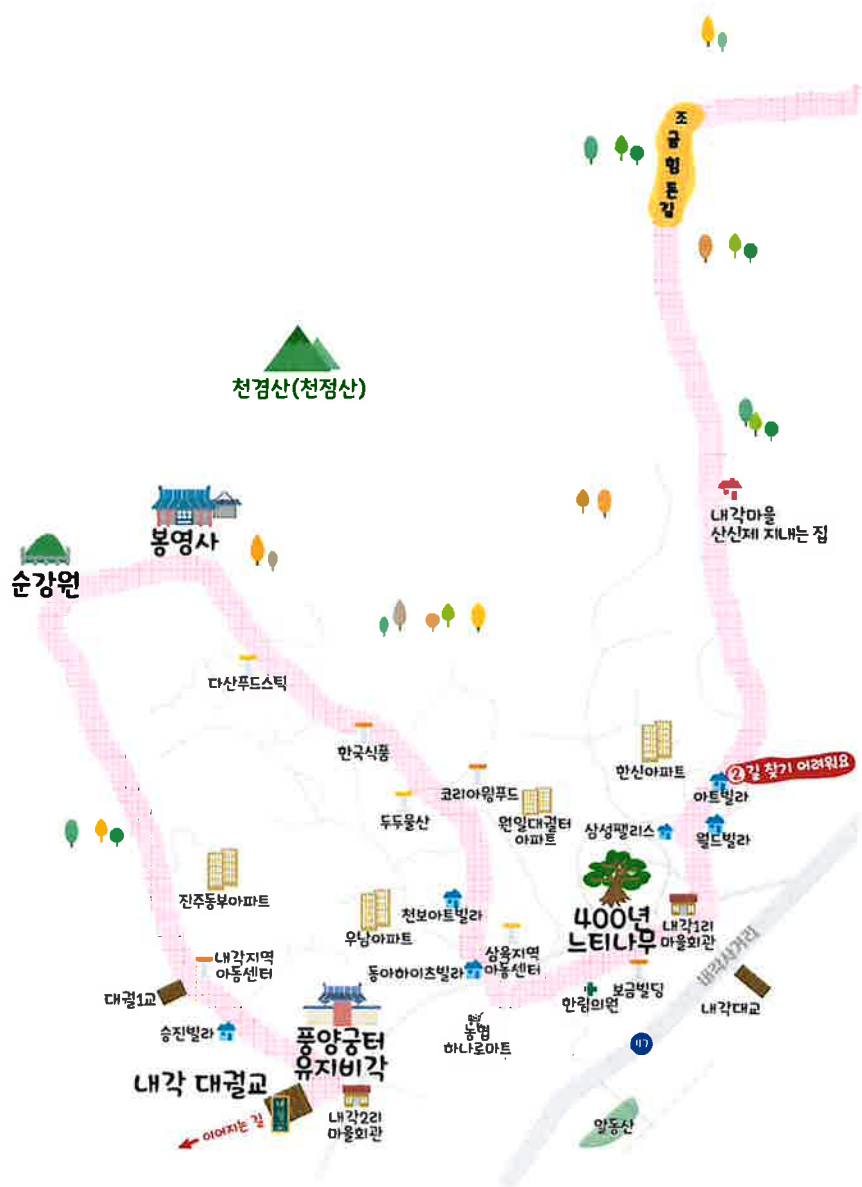
그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맛자랑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젊을 적 좋아하던 꽃과 화초를 다시 만지며 그 가게, 맛자랑의 실재를 소박하게 꾸며주는 장식가가 되었다.





꼼꼼하게 걸어봐요

1코스 2구간  
역사와 만나는 길



장현 길훈로즈빌~내각 대궐교 5.25km

제1코스 2구간

1번, 707번, 23번, 88번, 92번, 73번  
현대병원 앞 하차해서 길훈로즈빌(50m)로 걸어 들어가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61

난이도 ★★★★★ 상: 힘들어요!

길 찾기 어려워요 이정표 따라 걷다 보면

- ① 서울유치원 방향으로 올라가세요.
- ② 산에서 내려오면 빌라를 지나 도로로 내려주세요.

중요 팁 TIP

- ① 서울유치원을 지나 쉼스 안쪽부터 내각리 아트빌라까지 예쁜 숲길
- ② 내각리 마을은 길 마다 역사 이야기가 많아요.





### 400년 느티나무

- 혹시 명혜공주...?!

언제 누가 심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무는 어쩌면 명혜공주와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명혜공주는 현종의 둘째 딸이고, 숙종의 여동생이다. 혼인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혼례를 얼마 앞두고 명혜공주는 갑자기 죽고 말았다. 3개월 후 현종의 큰딸인 명선공주도 혼례가 결정된 상태에서 요절하였다.

자식이라고는 1남 3녀만을 두었던 현종은 요절한 두 딸을 불쌍히 여겨 살아있는 공주의 예와 같이 논밭 토

지를 두고 연회를 열기 위하여 막을 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특혜를 주었다. 뒤를 이은 숙종은 두 공주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상소를 받지만 부왕인 현종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물리친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짐작되는 느티나무와 명혜공주의 대목이다.

■ 숙종 22년, 1696년 1월 15일

명혜 공주방의 궁임·무녀가 신사하니 이를 벌하도록 하다

"어제 수십의 인마(人馬)가 길에 잇달은 것을 보고 물었더니, 명혜 공주방(明惠公主房)의 궁인이 대내(大內)의 분부를 받아서, 소를 잡고 제수(祭需)를 장만하여 풍양궁(豊壤宮) 터에서 이를 동안 신사(神祀)를 베풀고 파하였는데, 그 비용이 지극히 풍성하고 사치하였다.□합합니다. 이렇게 주경이 길게 가득한 때에 천백 사람의 여러 날 양식이 될 만한 것을 (후략)

소까지 잡아 큰곳을 벌이면서 혹 명혜공주를 위해 그때 심은 느티나무가 아니었을까..



### 순강원

- 조선최초의 왕비가 될뻔했던 후궁

신분제 사회에서는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사람의 대접이 달랐다. 왕과 왕비가 묻힌 묘는 '릉'이고, 후궁이었지만 왕을 낳아준 이의 묘는 '원'이고, 쫓겨난 왕과 일반 후궁들은 그저 '묘'에 묻힌다.

선조가 가장 사랑했던 후궁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아주고 일찍 죽었다. 그 사랑이 귀인 김씨에게로

고스란히 옮겨갔으니, 그 귀인 김씨가 바로 순강원의 주인이다. 우리나라 역사드라마에서 단골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선조의 총애후궁이며 이순신, 유성룡, 허준 등과 관련된 드라마에는 어김없이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선조와 귀인 김씨 둘 사이에는 4남 5녀가 있었으며, 선조는 그녀와의 둘째 아들인 신성군을 왕세자로 삼으려 했었고, 막내딸 정휘옹주를 시집보낼 때는 선물로 사패산을 하사할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다. 선조의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자식 없이 죽자 궁궐내외의 여론은 인빈 김씨가 왕비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점쳐졌지만, 51세의 선조는 궁이 19세의 인목왕후 김씨에게 새장가를 들고 만나. 그리고는 미안했는지 귀인 김씨를 정1품 인빈으로 승격시킨다.

훗날 인빈 김씨의 손자가 왕이 되니 그가 바로 '인조반정'의 주인공 조선 16대 인조임금이다. 따라서 그녀는 근처의 일반 묘에 묻혀 있다가 훗날 승격되어 이곳 '순강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 봉영사

- 우리동네에도 무량수전이!!

이곳은 원래 신라 진평왕 때 세워진 봉인암이라는 작은 암자였는데, 근처에 인빈 김씨가 묻히고 순강원이 조성되자 인빈 김씨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조선왕실로부터 원당으로 지정되었고, 이름도 "순강원을 오래도록 받든다"는 뜻의 봉영사로 바뀌었다.

보통은 절의 중심에 있는 전각을 대웅전이라 하는데, 이곳에서는 무량수전이라 한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배흘림기둥은 아니지만 전각의 명패는 똑같은 무량수전(無量壽殿)이다. 두 곳 다 서방 극락정토의 주재자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전각이기 때문이다.

봉영사는 천정산 자락에 있다. 천정산은 풍수지리학 상으로 용이 여의주를 잡으러 달려 나가는 형상의 산이며, 깊은 샘을 간직하고 있어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천정산(泉岾山) 물은 끊기는 일이 없다고 한다. 절 바깥마당에는 아주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 물 받으러 다니곤 하던 유명 악수터가 있다.





### 잔서완석루 & 송승훈 - 그집에 그가 살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2년여를 주고받은 수십 통의 연애편지 같은 이메일은 「제가 살고 싶은 집은,」이라는 책으로, 그 결과물은 《잔서완석루》라는 집으로 완성되었다.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

을 생각하고 깨우치고 배우게 하는 책이고 집이다. 집 내부는 재미있고 유쾌하며 때론 터널을 지나듯 길게 연결되어 있고 중심에는 많은 책들이 무녕왕릉 고분의 벽돌처럼 뉘어쌓기와 세워쌓기를 하며 축조되어 있다.

책을 뒤적거리며 잠시 쉬었다 나을 때면 자신이 머물던 공간은 스스로 끌고 뒤이어 짐밖으로 나올 수 있다.

손님이 청소하고 나오는 집이다. 다시 나와서 보면 시멘트집이 아까와는 달리 색다르고 아름다워 보인다. 정말 유세부리지 않는 집이다.

집주인 송승훈은 우리동네 광동고의 22년차 국어교사이다. ebs 최고의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율교랑, 대입수능출제위원이며 「나의 책 읽기 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책읽기, 글쓰기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 있는 국어교사들이 이곳 《잔서완석루》에서 종종 모임을 갖는다. 편안하고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송승훈 선생님, 그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의 책을 읽고 나면 내 아이도 이런 선생님께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게 된다.



### 테외산 - 정체불명의 퇴외산, 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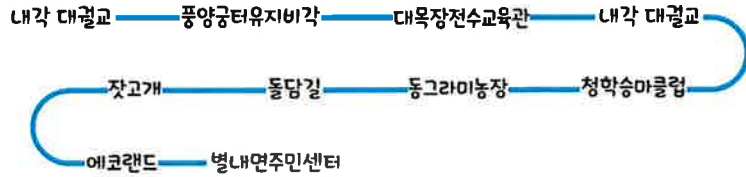
테외산성이라 불려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성은 그 쌓는 방식에 따라 테외형과 포곡형으로 크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테외형은 다른 말로 산정형(山頂形)이라 하여 테를 두르듯 산 정상에 둘러 쌓은 성을 말하고, 포곡형(包谷形)은 계곡과 산정을 함께 두른 성을 말한다. 산 정상에 완성되지 못한 채 남은 옛성(古城)이 곧

테외산성이나 사실은 한 몸인데 사람들이 따로 따로 옛성과 퇴외산이라고 갈라 불러왔던 것이다.

테외산은 퇴계원 근방까지 남북으로 연결된다. 동쪽으로는 진접읍 내곡리, 서쪽으로는 별내면 광전리가 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의정부 방면에서 넘어올 때 빙 돌아가기 싫고 후딱 가고 싶은 마음에 이 고개를 오르내리다가 많이 얹어져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졌다 하여 전도치(顛倒峙)라고도 불렀다 한다. 지금은 이 산 밑으로 터널을 뚫어 편히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이름 하여 전도치 터널이다.







### 내각 대궐교 - 있어도 있는지 모르는 다리

대궐교와 대궐1교, 이 두 개의 다리는 이곳에 정말로 세종대왕이 상왕이 되어 은퇴한 아버지 태종을 위하여 세운 '풍양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소하지만 묵직한 존재감들이다. 불길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 풍양궁과 달리, 이 두 다리는 600년이 지나는 동안 중간에 비록 원형이 바뀌긴 했지만, 본래의 제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종이 죽고 나자 사람이 찾지 않는 쓸쓸한 궁궐이 되어버린 풍양궁을 대규모로 증축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은 그의 손자이자 조선 7대 임금인 세종이다.

■ 세조 5년, 1459년 2월 26일  
이궁 앞의 다리가 대가(大鷲)가 겨우 지나가자 무너졌으므로, 현부(憲府)에서 양주 부사 김진지를 핵문(劾問)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동이궁인 풍양궁에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세조 임금이 탄 큰 가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당시 다리가 무너졌었나 보다.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니 요즘 식으로 말하면 검찰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죄상을 따져 물게 해야 한다고 신하들이 요청하니, 세조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이다.

### 최기영 대목장 & 전수교육관 - 공사다망 잘 나가시는 영감님

열일곱 때부터 오직 목수로서 현장에서만 살아온 끝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최기영 대목장(77). 전수교육관은 건물 전체를 설계하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대목장의 기술을 전수받고 이수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육받는 곳이다. 영감님은 그동안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 전면 해체보수, 충남 예산 수덕사 일주문, 광주 남한산성 수어장대 등등 수많은 국가의 보물을 짓거나 보수하여 왔고 그중 17년의 공을 들여 완성한 충남 부여의 백제문화단지나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하다. 단지 안에는 5층 목탑도 있다. 38미터 높다. 치열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솜씨를 쏟아 부어 5층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진에도 끄떡 않을 5층 목탑을 만들어냈다.

“나이 먹은 것이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더럽고 괴심하기도 해. 아쉬워서, 너무나 아쉬워서...”

황룡사 9층 목탑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해내고 싶어 하는 영감님. 부디 늙고 병드는 걱정 덜쳐버리고 남은 생애 최고의 영원 꼭 이루어 내시기를...



### 옛성산

워낙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의 지역에만 1,200여개 이상의 산성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주로 삼국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고구려의 안시성, 백제의 북한산성, 신라의 삼년산성 등이 손꼽히는데 이곳에도 산성의 흔적이 있다. 언제 누가 쌓았는지에 대

한 기록은 없다. 단지 이 기록을 참고하자면

■ 세조 5년, 1459년 2월 28일

이궁의 성산(城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가를 수종한 종친, 재추에게 노루를 내려주고, 아울러 술을 내려주었다.

이 산성은 당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 때 항쟁하던 산성이었거나, 아니면 그 이전인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일 수 있다.

한강유역을 두고 삼국이 치열하게 대결하던 때에 을지문덕 장군이 아차산과 연결되는 산성 벨트를 영두에 두고 짓다가 북쪽에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급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멈추고 만 공사가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끼 낀 거대한 돌들에서 고대 산성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 풍양궁 유지비각 - 풍양은 남양주시의 옛이름

태종(이방원)은 장남인 양녕을 폐세자 시키고 나자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왕자의 난을 두 번이나 일으키며 왕이 된 자신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 대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태종은 서둘러 셋째인 총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한 왕, 즉 상왕(上王)이 되어 아들 세종의 국정을 도와줄 마음을 먹는다.

창덕궁 옆에 수강궁(훗날 창경원)을 지어 살던 태종은 동서남북으로 이궁(離宮)을 두고 싶어 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세종은 동쪽인 이곳 풍양 땅에 궁궐을 지어드렸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머물다 세상을 뜬 후 풍양궁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다. 그러다가 세종의 둘째아들 수양대군이 즉위하자 이곳은 대대적으로 증개축 된다. 세조는 풍양궁에서 정치를 펼칠 생각으로 조정을 분조하여 왕후와 왕세자까지 모두 거느리고 내려왔다. 하지만 그리기에는 이곳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는지 40여일 만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다.

세조가 광릉에 묻힌 후 성종, 중종 등 후대의 왕들은 광릉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러 쉬다가는 장소로서 풍양궁을 이용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인지 병자호란 때인지 모르겠는 어느 겨울 불에 탄 자취만 남기고 풍양궁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무너진 기둥 깨진 기왓장들이 굴러다니는 풍양궁의 옛터를 지나가던 영조는 깜짝 놀랐다. 영문을 물었더니 주위에 있던 신하가 대답했다. 태조(이성계)가 상왕으로 있을 때 살던 궁궐터라고 말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궁에 대한 기억이 헛갈렸고 고증할 틈도 없었으니 그리했으리라. 그리하여 영조 친필의 비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태조대왕재상왕시구궐유지(太祖大王在上王時舊闕遺址)'라고.

잘못된 그것을 그대로 베껴 '태조고황제소어궐유지(太祖高皇帝所御舊闕遺址)'라고 새긴 구한말 고종황제의 친필 비석 또한 나란히 서있는데, 이 두 개의 유지비가 비바람에 쉬 마모되지 않도록 전각을 지어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풍양궁 유지비각인 것이다.





별내주민센터~무지랭이약수터 7km



에코랜드 입구 8-8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침학로8번길 22

산이도 ★★★★★ 최상 : 당신은 강철 체력!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지도 중요 팁

- ① 도정산길이라 험하지만 흙내음, 나무내음, 잣나무 숲속 바람이 불어요.
- ② 비루고개에서 무지랭이까지 오르막 내리막길이 여러번 있어요.





별내연주민센터 — 산하교 — 신촌교 — 용암천따라 아름다운 벚꽃길

무지랭이약수터 — 비루고개 — 깃대봉(도정산)



**무지랭이 약수터**  
-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이름

고개를 넘어가도 인가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무지령(無至嶺)' 이었는데 그 의미가 엉뚱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잘못 전달되어 원래 무지령이 어느새 무지랭이가 되어버렸다. 고개 넘어 인가가 없었던 이유는 당시 인근에 세조의 광릉이 들어서면서 일대의 산들이 광릉숲으로 묶여져, 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엄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출입과 간섭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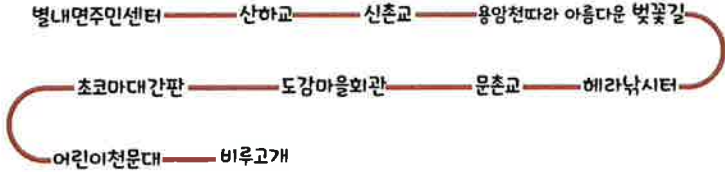
용암산 쪽에서부터 흐르는 이곳의 물은 부스럼도 낫게 할 정도로 차고 너무 좋아 '젓물' 이라고 부를 만큼 민락동 사람들이 예전부터 신성시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신성함이 사라지는 듯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주는 약수터이다.







제2-1코스



**비루고개(종말고갯길)**  
- 이별하던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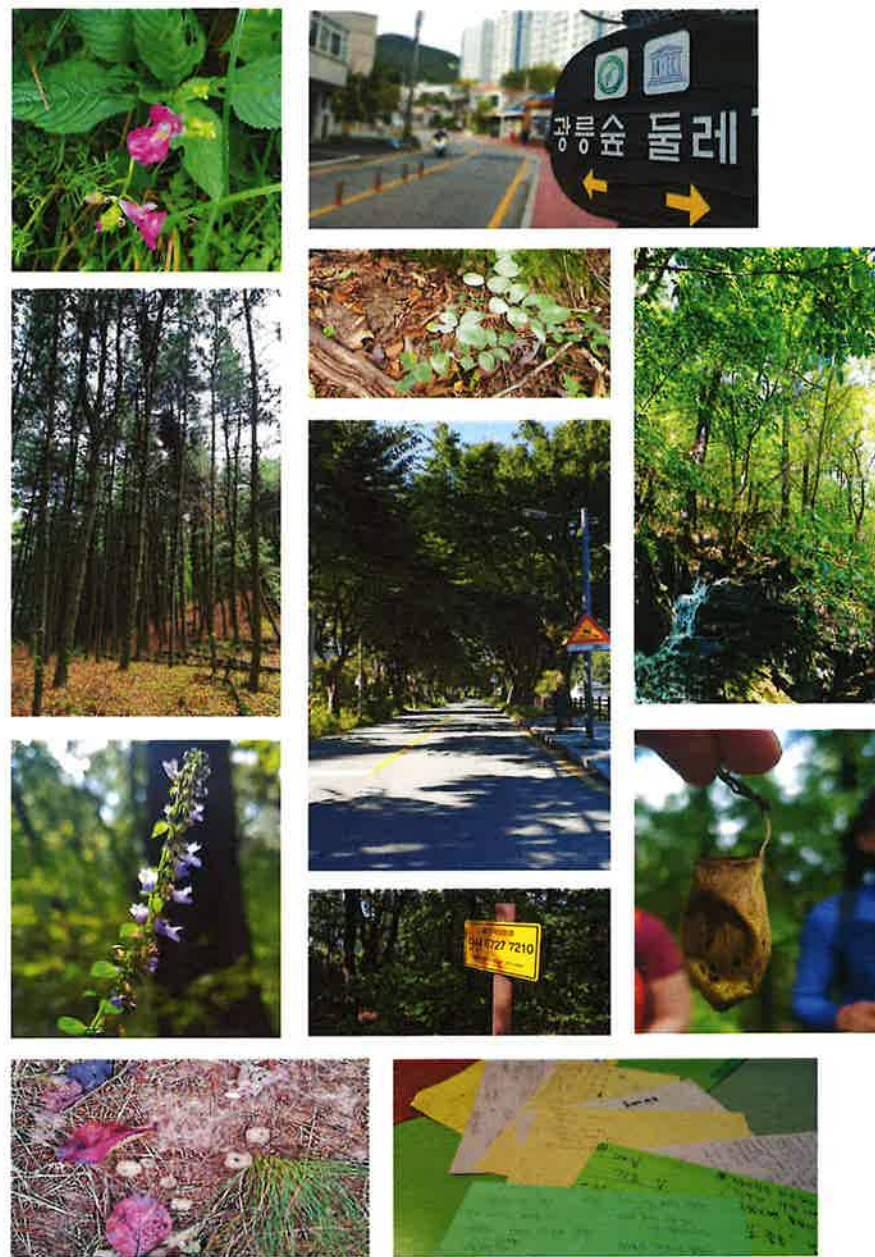
전국 어디에나 있음직한 웃말, 아랫말, 중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종말이라는 이름의 마을들... 헤어진다는 의미의 한자어로 지금은 '이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이별보다는 '별리'라고 많이 했다. '비리' 혹은 '비루'란 이 별리고개(別離峴)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이별하던 고개', '작별을 나누던 고개'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으로 전해지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갈려 헤어지게 되는 지점이었다는 뜻이라...

웃다 핀 꽃 한 송이 같은 애잔한 사연 가득한 그 이름 비루고개  
고개턱에 걸터앉아 그 이름 불러보는 비루고개

광릉숲 둘레길 8코스 전체 지도




- 1 옛사랑길**  
13.0km / 5시간 10분  
진접중학교-별내면주민센터
- 2 종말고갯길1**  
7.0km / 3시간 10분  
별내면주민센터-무지렁이약수터
- 2-1 종말고갯길2**  
5.2km / 2시간 10분  
별내면주민센터-비루고개
- 3 용암산정상길**  
3.1km / 1시간 30분  
무지렁이약수터-무림리(내루굴)
- 4 고모리산상길**  
5.6km / 2시간 40분  
무림리(내루굴)-비룩재
- 5 왕속천물내을길**  
8.4km / 4시간 20분  
진접중학교-마왕1리마을회관
- 6 죽엽산길**  
7.4km / 미조성구간  
마왕1리마을회관-비룩재
- 7 산림욕길**  
7.7km / 3시간 10분  
생태습지-이곡초등학교
- 8 고모리길**  
2.6km / 50분  
적룡상거리-비룩재



## 꼼꼼한 안내지를 만든사람들

발행 2020년 11월  
기획 진접문화의집  
진접속깊은여행 동아리  
해설 송혜경  
후원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광릉숲둘레길 꼼꼼한안내지는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주민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